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一 朝鮮日報社

蔣總統遂下野決行

李宗仁氏首班에就任

延安派遣의四和平特使決定

【南京廿二日發UP고리】蔣介石氏는 內戰終熄을爲한 共產黨과의 交涉의길을열어주기爲하여 總統으로서休暇를얻어 隱棲地로向하였다. 熱烈한和平論者인 李宗仁副總統은 即時 政府首班으로 就任하였다. 一便內閣은 即時停戰과 和平交涉開始를 呼訴次 延安共產黨本部에 張治中 張群 邵力子 吳忠信의 四名을 派遣하기로決定하였는데 이들은毛澤東以下共產黨中央委員會幹部들과 會見하고 和平會談開催에앞서 干先停戰을 要請할豫定이다 그리고 內閣은 李宗仁氏에게 總辭職願을 提出하였다

李宗仁 新首班

下野한蔣介石氏

中再建에團結

李宗仁氏國民에呼訴

【南京廿二日發AFP=合同】蔣介石氏의 下野에따라 國府副總統代理로서 李宗仁氏는 廿一日밤 中國國民에對하여 다음과 같이呼訴하였다 蔣介石氏가 下野는하였으나 中國國民은 和平을 達成하고 中國再建을爲해 團結하여야한다 …

李將軍의略歷

【南京廿二日發AP合同】

歷經氏蔣의瀾波

停戰和平念願

蔣總統作別辭發表

時代潮流에巨星墜地

和平不成立時에는再蹶起乎

停戰前에會談

中共側國府案拒否

【上海二十二日發UP고리】

係內閣留任

蔣氏奉化到着

【南京廿二日發AFP=合同】

蘇平和工作期待

오美國聯代表談

韓委比代表에

무나氏被任

和인調停機構

亞洲會서設置着手

美에차손新國務

長官就任式擧行

韓委入北希望

歡迎의뜻表明할뿐 金九氏談

인國解放에協力

對亞洲會멧세지起草

國會

國民會大會二日

總裁指示를檢討

政界의合同動向極微妙

韓民?國民會?

選擇에難處한國民黨

韓民黨과 大韓國民黨의 合黨에關하여는 昨報한바와같거니와 韓民黨에서는 二十一日開催한 中央執行委員會에서 이를正式으로決定하는同時 …

一民主義를貫徹

國民黨과合同 獨促大會서力說

總裁 李承晚大統領은 …

中國의앞길은?

(上) P Y 生

觀望者의心中

蔓延一路의共產勢力

防止한勇敢한消防手도없는듯

韓國에의影響

不可思議의中國

主義觀念없는軍

政界動靜

人事往來

八面鋒

社告

劉鳳

一月二十二日 朝鮮日報

賀

◎光州◎

全羅南道 知事 李南圭 外職員一同

合資會社 大同營材社 社長外職員一同

光山郡廳 郡守 李揆甲 外職員一同

光州專賣支局 支局長 文元湜

光州府北洞 大韓食糧公社 全羅南道支社 支社長 金文玉 外職員一同

光州府稅務署 署長 金政植

光州府良洞 全南道是製絲株式會社 支配人 李時馥 外職員一同

光州府錦南路 土木建築請負業 大興工業社 崔貴男 電話一六二番

◎汚川◎

汚川公立初級中學校 校長 李鍾乾 外職員一同

汚川公立國民學校 校長 李明德 外職員一同

汚川面事務所 面長 黃益周 外職員一同

汚川警察支署 主任 趙振燮 外職員一同

汚川警察支署 後援會役員一同

汚川金融組合 職員一同

汚川郵便局 職員一同

汚川消防隊 隊長 安昌熙 外隊員一同

順城面事務所 面長 辛定鉉 外職員一同

汚川農會職員一同

仁濟病院 公醫 朴仁植

汚川面 朴燦成

◎長湖院◎

湖西醫院 張錫鵬

雲岩堂藥房 朴炳文

保元堂藥房 兪敬濬

長湖院邑 職員一同

長湖院 第一公立國民學校 職員一同

京畿道長湖院 株式會社 長興社

長湖院酒造株式會社 本社 利川郡長湖院邑 分工場 利川郡雪星面

長湖院邑 家庭雜貨 東林洋行 主 徐寅辰

和洋雜貨 郡穀買 兄弟商會 主 李建衡

京畿道貨物自動車運輸事業所 長湖院出張所

長湖院邑 鄭東燮

大新聞具一同

朝鮮日報汚川支局 兪思濬

主 呂德茂

長湖院邑 小兒科 內科 救世病院 醫師 金明濟

長湖院邑 同和商會

陰城郡甘谷面 至誠醫院 醫師 韓翊鎬

甘谷面事務所

臨城郡 陰城郡生極面 面長 朴善九 副面長 金東潤 外職員一同

利川郡栗面事務所 面長 朴弼九 職員一同

加南公立國民學校 外職員一同

加南面事務所 面長 曹奎善

驪州郡占東面 元富水利組合 組合長 閔泳翊

祝賀用은特別製造 高級洋菓子 永信號 서울市忠武路二街五〇 電話本局八八二番

日帝搾取의 牙城 朝鮮銀行새出發
不日國務會議에上程
中央銀行法

賞褒의 獎勵業學
文敎部서 制限을 通牒

開城朴文圭氏가 楊州孤兒院創設

起訴事實否認
革命義勇軍事件公判續報

珍島中學期成會에 孫氏喜捨

檢德近海에서 「양미리」大豐漁

反民處斷地方에도着手
朴重陽大邱서檢擧
日政下의中樞院參議

綿絲는暴落 週末의物價時勢

北韓政權에反對 海州서武裝蜂起
戰鬪로飛行場도燃燒

公報處發表

廿二日正午發表…

興行許可事務 時急引繼를指示

京畿道廳 守衛들脫線
三百萬圓의物資窃取

美將兵團一行
오늘仁川에上陸入京

十月輸入物資 千百四十萬弗

「고양이」에반찬가게格

파리날리는 共同宿泊所

눈먼은殺人事
病院에서서다주고맥손이

自由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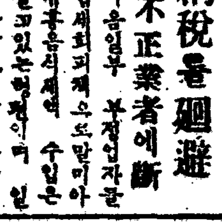
幽靈人口調査 아직不徹底

納稅를廻避 不正業者에斷

農牛의密殺 防止에妙策

今日의話題

團體動靜



短篇小說 눈보래 (19) 朴榮濬 作 金龍 超 畵

어린이

애기동화

거울

우호 지음

애기는 정말 아모 것도 싫였읍니다 얌얌도 까까도 쥐다가 팔에 앉읍니다.

그래서 막 울었읍니다.

언니가 암만 달래도 듣지 않읍니다.

「아가 업어줄까?」

「그럼 안어 줄까?」

그래도 애기는 여전히 울기만 합니다.

이번엔 언니는 깡충 깡충 토끼 숭내를 내었읍니다. 야-옹하고 고양이 우는 숭내도 냈습니다.

언니가 무슨 것을 해도 애기는 본척도 울음 울마고도 하지않읍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안 돌아 올까요. 쌀사가지고 온다지가 벌서 한참 되는데요. 언니도 고만 울고 싶었읍니다.

그러자 마침 그때 엄마의 경대 거울속에 언니는 애기 얼굴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애기의 눈과 마조 쳤읍니다.

「아 하하」

애기도 웃었읍니다.

애기는 거울속의 언니가 암만해도 저를 보지 않기때문에 울었던 것이 었는지도 몰르지요.

언니는 거울을 들여다 보고 멍 멍 개가 짖는 숭내를 냈읍니다.

아가도 제법 딸아 할 듯이 업들입니다. 그래도 쌀가게에서 엄마는 안 옵니다.

동요

애기별

홍은순

애기별의 엄마는
달인가 봐요
그러길래 달님을
따라 다니죠

×

애기별은 밤중이
무선가 봐요
그러길내 달님을
따라 다니죠

참새

김인순

그러면 참새는 아조사람들의 필요수 없는 새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이번엔 참새를 잡은다고하지말고 장주리도 놓지않고 마당 한구퉁이에 쌀을 좀 놓아 보십시요 좋은참새들이 한쿰 한쿰 하고 그쌀을 주서먹으러 올것입니다.

농촌에선 더욱히 가을에 벼곡식을 먹는다고 참새만보면 기가나서 미워합니다만 사실은 참새가 벼곡식을 먹는것보다 봄 여름에 얼마나 많은 벼의 나쁜 벌레를 잡아먹었읍니까?

참새뿐만 아니라 다른 즘생 또는 다른 일에도 이런것이 많이 있읍니다.

(수)(담)

○나무의 오르라고 흔든다
○나종 나는 뿔이 우뚝하며
○노루가 제 방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나려오는 말입니다. 이말이 무슨 말인가 어머니께 여쭈어보십시요

徽章·마-크 原型美術工業社

果樹園讓渡 梨樹 住宅 抱川興業社

安一商會 電話本局(2)九八二番

양초製造都賣

梅毒 神快藥 痔疾 運珠丸 濟蒼局

아편解毒藥

肛門科專門 東亞醫院

化粧品 大昌洋行

求豚毛 取扱品

月貰房

讓渡 太陽光線治療機

치질전문

一般公開를不許든待望의映畫 美陸軍省製作
三次戰을云謂하는人士· 平和를希求하는人士· 男女老幼를莫論하고無條件보아야할映畫!

眞實의勝利
同時開封 B29
自家暖房完備
23日부터 中央 獨占

파라마운트社作 靑鬚第八妻 게-리쿠-퍼 크로델·콜벨 主演 22日부터 朝劇

各種香料製造販賣中
◎醋酸아밀에스텔
◎冬綠油
◎醋酸에질에스텔
◎醋酸부질에스텔
◎安息香酸에질에스텔
開城府壽昌洞二九九 松都理化學研究所 電話開城局八四七

補缺生募集
一、募集學年 二、三、四學年各科若干名
一、試驗期日
一、志願마감
一、提出書類
서울市 서울公立工業中學校(舊京工)

男女學生募集 晝間 夜間
一、募集科(各科修業年限三個年)
二、入學資格
三、志願書마감 二月五日限
四、試驗期日及科目
詳細事務處問
서울法政專門學館

脫退聲明書
文 簡 里 寧 祚

各種印刷專門 石版印刷 化粧品넷텔 卒業證書 證券 성냥넷텔 高級넷텔
光陵印刷所 李正業

文敎部社會敎育局指定 高等公民學校敎材 中央通信中學校

中學講義錄 中學生에게는 좋은 入學案內

告 합
一、決議文
二、解散宣言
大韓民族靑年團全國理事及道團長 連席會議

額椽棒製造都賣 (사진들재료) 玉美堂額椽製作所 主 在